

지난해 9만대 감소...갈수록 쪼그라드는 LPG차 시장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인식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1일 LPG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PG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만5114대로 전년보다 9만547대 감소했다. 전체 차량 중 LPG차의 비중은 10%였다.

2010년까지만 해도 줄곧 증가세였던 LPG차는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로는 매년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다.

2011년 1만584대가 줄어든 데 이어 2012년에는 1만1745대, 2013년에는 2만2872대, 2014년에는 5만5484대, 2015년에는 7만9350대 등으로 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LPG차는 저렴한 연료비 덕분에 외환위기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에는 113만대나 증가하며 LPG차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개편으로 LPG 가격이 오

218만대 등록 ... LPG 가격 오르고 경유차 인기 원인

정부 규제완화 검토 ...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을지 주목

르고 신차 출시가 부진한 데다 경유차가 인기를 끌면서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LPG차는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와 달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다. 싼 연료비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용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LPG차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차종도 하이브리드차나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 차량)에만 LPG 엔진을 달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용 규제에 뚜렷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LPG 연료가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희소해 경제적 가치가 특별히 높거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이탈리아나 폴란드, 터키 등 해외에선 LPG차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터키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보급대수 427만대로 승용차 중 점유율이 40%에 달한다.

최근 정부도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를 이용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LPG 업계 관계자는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디젤 차량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세일가스 증산으로 LPG 생산도 늘고 있어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는 만큼 LPG차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는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벤츠 '국내 맞춤형 커넥티드카 서비스' 9월 첫선

최고급 세단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첫 장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KT와 함께 야심 차게 개발하고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서비스가 오는 9월 출시되는 최고급 세단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 모델에 처음으로 장착된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T와 협력해 준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서비스를 9월에 선보이는 S클래스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넥티드카는 가정, 사무실, 도시와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 제어,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이하 미 커넥트) 서비스도 KT 통신망에 블루투스(LTE) 통신망을 토대로 운전자, 차량, 서비스센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수입차 업체가 100% LTE의 국내 통신망을 기반으로 국내 맞춤형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3G나 해외로밍 등을 기반으로 한 수입차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일부 제공됐지만 속도가 느리거나 맞춤형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실라키스 사장은 "미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이 휴대전화와 완전히 연동된다"며 "외부에서 휴대전화 조작을 통해 문을 여닫거나 냉난방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연료 소비율, 브레이크 패드 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부품 교환 시점, 부품 고장 이유 등을 서비스센터로 전달하는 기능도 갖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KT와 개발하고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오는 9월 출시되는 최고급 세단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 모델에 처음으로 장착된다. 사진은 상하이 모터쇼에서 소개된 S-클래스 부분변경 모델. <벤츠 코리아 제공>

24시간 긴급출동을 요청하거나 사고 때 차량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지해 차량 위치 및 안전표 착용 탑승 인원 정보 등을 고객 센터로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

목적지 관련 정보, 주변 맛집 검색 등 개인 비서 기능의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실라키스 사장은 "우선 S클래스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모델 중심으로 미 커넥트 서비스를 장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KT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 고객만을 위해 완벽하게 현지화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미 커넥트 서비스는 미래 주행 환경과 행동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아차 소외계층 청소년 정착 돕는다

차 판매 연계 성금 모금

'해피 모빌리티' 캠페인

기아자동차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착을 돕는 '해피 모빌리티'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고객들의 차량 구매가 곧 기부로 연결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1대당 1500원의 금액을 적립, 성금

을 모아 오는 7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성금을 소외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각종 활동과 운전면허증 취득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정 나이 18세에 도달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아차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연

간 2천여명에 달하는 홀로서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던 중 먼저 취직이 사회생활 시작에 기초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기아차는 차량을 이미 보유한 고객들도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아차 공식 블로그 '플레이기아(http://play.kia.com)'에서도 소셜 펀딩을 활용해 성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오는 8월에는 임직원과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자립 캠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분기 전기차 1800대 보급 ... 지난해보다 8배

공공기관 구매 주도

올해 1분기 중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수가 18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기차 국내 보급 대수는 1806대로 지난해 1분기 223대의 8배가 넘었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242개에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545대를 전기차(527대)나 수소차(18대)로 구매했다.

올해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1936대의 전기·수소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평균 전기차 구매비율은 43.6%로, 의무 구매비율(4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41개)은 올해 구매 예정인 업무용 차량 805대 중 70%에 달하는 564대를 전기차로 사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전기차 활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의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공공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민간 충전사업자도 육성할 예정이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을 정갈하고 그리고 최선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